

한중 역사 현안 바로알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 끝나지 않은 역사분쟁 _ 03
2. '동북공정'의 추진 의도와 '동북공정'식 역사인식의 억지 _ 09
3. 중국의 주장, 그리고 우리의 견해 _ 17
 - 고조선사 문제 _ 18
 - 부여사 문제 _ 38
 - 고구려사 문제 _ 40
 - 발해사 문제 _ 52
 - 백두산 문제 _ 64
4. '동북공정'이 남긴 것,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 _ 71
5. '동북공정'의 사업 내용과 연구 결과물 _ 77
6. '동북공정' 주요 일지 _ 8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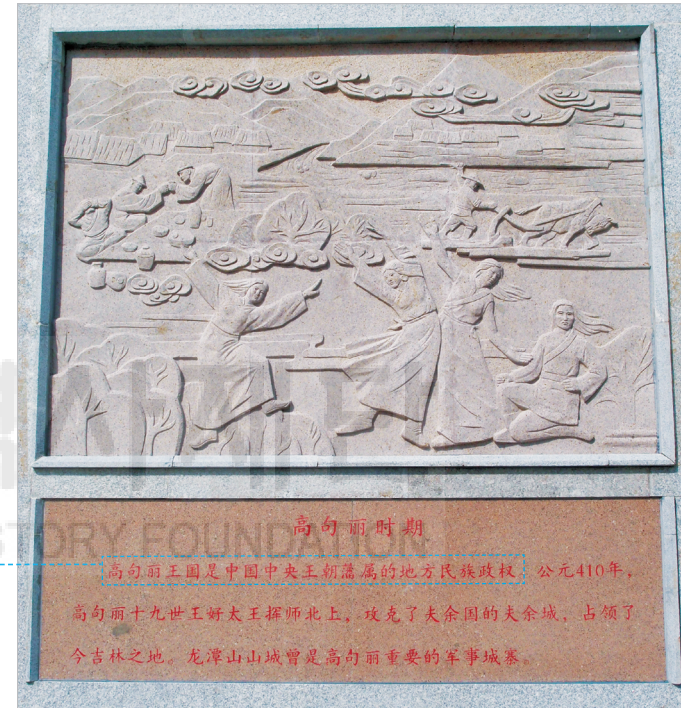
끝나지 아닌 역사분쟁



* '동북공정'
 동북변강역사여현상
 계열연구공정(東北邊
 疆歷史與現狀系列研
 究工程)의 줄임말로,
 중국사회과학원 산
 하 중국변강사지연
 구중심(中國邊疆史地
 研究中心)에서 2002
 년 2월 28일부터 5년
 간 시행한 연구사업
 이다. 중국 동북 3성
 지역(헤이룽장성, 지
 린성, 랴오닝성)에서
 일어난 과거 역사와
 현재의 문제가 주요
 연구대상이다.

'동북공정'^{*}은 사업시행 초기에 고구려사를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고구려사를 중국사라고 강변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이로 인해 '동북공정'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고구려사 빼앗기 사업' 등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동북공정'의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알려지면서, 고조선·발해의 역사까지 중국사로 편입시키려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더 나아가 한반도의 정세 변화에 대비한 역사적 명분 마련을 위한 중국의 국가전략이라는 것도 드러났다.

이런 점에서 '동북공정'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 왜곡된 내용의 부조물과 설명문(고구려 부조, 중국 지린성 지린시 옹담산성)
 고구려를 중국의 지방정권이었다고 왜곡하고 있는 내용이 보인다.

高句麗王國是中國中央王朝藩屬的地方民族政權

고조되자, 정부에서도 장기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중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다. 2004년 8월 한중 구두 양해사향^{*} 합의로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한중 양국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동북공정’의 결과물이 발간되어 ‘동북공정’의 논리가 확산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에 2006년 9월과 10월, 노무현 대통령이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와 후진타오 국가주석에게 이 문제를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하였다. 중국 최고지도자는 구두양해사향을 존중하고 이행하겠다고 화답하였다. 그리고 2007년 2월, 5년 계획으로 추진된 ‘동북공정’은 의견상 종료되었다.

한중 구두양해사향

다음의 5개 사항에 대해 합의하였다.

- ① 중국 정부는 고구려사 문제가 양국 간 중대 현안으로 대두된 데 유념
- ② 역사 문제로 한중 우호협력 관계의 손상 방지와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에 노력
- ③ 고구려사 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도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정치 문제화하는 것을 방지
- ④ 중국 측은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의 고구려사 관련 기술에 대한 한국 측의 관심에 이해를 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감으로써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
- ⑤ 학술교류의 조속한 개최를 통해 해결



▲ 왜곡된 내용의 부조물과 설명문(발해 부조, 중국 지린성 지린시 용담산성)
 부조에 묘사된 장면은 마치 당의 책봉에 의해 발해가 건국된 것인 양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또한 발해의 건국 세력을 말갈인으로, 발해를 당의 지방정권으로 왜곡하고 있는 내용이 설명문에 보인다.

● 唐代，粟末靺鞨人崛起于粟末水（松花江）畔，

● 渤海王与中央唐朝长期保持着亲密关系。

그러나 중국 최고위층의 구두약속과 5년간의 ‘동북공정’ 연구사업을 종료하였다고 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역사학에서는 연구성과가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며, 발간된 연구물은 내용의 타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상당기간 존속하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동북공정’의 연구성과들은 학술적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고구려·발해 유적지의 표지판이나 박물관 안내문, 대학 교재 및 교양서 등에까지 수록되고 있다. 이제 ‘동북공정’은 전문학자들의 영역을 벗어나 학생들과 일반 중국인들의 상식을 바꾸어가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고조선·고구려·발해의 역사를 중국사라고 보는 인식을 넓은 의미에서 ‘동북공정’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동북공정’은 여전히 진행형이고, 언제 끝날지 모른다. 동아시아의 역사는 과거부터 서로 맞물려 전개되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므로, 이제 관련 국가들은 사실에 바탕을 둔 화해와 협력의 역사를 써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적 사실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역사왜곡에 대처하고 우리 역사를 지켜낼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동북공정’의 목적과 주요 주장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2

'동북공정'의 추진 의도와 '동북공정'식 역사인식의 억지



'동북공정'은 2002년 2월부터 5년
간 중국사회과학원 산하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과 동북 3성^{*}
이 연합해서 추진한 중국의 국책 연구사업이다. 중국이 '동북
공정'을 추진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동북 3성
중국 동북쪽에 있는
지린성·랴오닝성·
헤이룽장성으로, 조
선족 교포들이 많이
살고 있으며, 한국과
역사적·문화적으로
밀접한 지역

무엇보다도 중국은 향후 한반도에서 예상되는 정세변화가
중국 동북지역에 미칠 정치적·사회적 영향과 충격을 차단해
서 동북지역을 안정화하고, 동북아 국제질서 변화에 적극 대
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국가주의 역사관, 특히 각 민족의 단결



▲ 신축된 지안박물관

을 강조하는 '통일적다민족국가론'을 동북지역에 적용하여 중국의 역사적 정체성을 완결하려고 한다. 동시에 조선족이 중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 동요하거나 이탈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려고 한다.

그리고 중국은 '고조선·부여·고구려·발해=중국사'라는 논리를 일반화하여, '만주는 한민족의 고토(故土)', '고조선·부여·고구려·발해=한국사'라는 한국의 역사인식에 대응하고 한반도와 중국 동북지역 사이의 역사적 관련성을 부정하려고 한다.

또한 '고조선·부여·고구려·발해=한국사'라는 논리가 지속될 경우, 몽골이 원사(元史)를, 중앙아시아 일부 국가가 서역사(西域史)를, 베트남이 진·한(秦漢) 시기 백월(百越)과 남월(南越)의 역사를 각각 자국사로 주장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여긴다. 그렇게 된다면 중국의 역사·민족·국가의 정립은 곤란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역사·민족·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주변 민족국가의 역사논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동북공정'은 '중국의 고구려사 빼앗기'와 같은 '학술문제'의 차원을 넘어 향후 한반도 정세변화와 직결된 전략문제다. 따라서 '동북공정'을 단순히 '중국의 고구려사 빼앗기 프로젝트' 정도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동북공정'에는 향후 한반도의 정세변화 및 동북아 국제관계 변화에 대한 예



▲ 중국사회과학원 산하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

측과 대비책 마련이라는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그러한 점에서 ‘동북공정’은 우리 민족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와도 직접 연결되어 있다.

‘동북공정’은 ‘현재’의 필요를 위해 과거의 이미지를 새로 만들어 중화민족 국가의 역사적 연원을 마련하고, 국민적 통합과 영토적 통합을 완수하려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현재의 중국 영토 내에서 각 민족이 이루어낸 역사적 활동은 모두 중국사’라는 현재적 편의를 역사관, ‘현재의 중국 영토 내에서 활동했던 모든 민족은 당연히 중화민족이고 중국민족’이라는 민족관, 근대 이후 형성된 ‘영토’ 개념이나 ‘국경’ 개념을 전근대 시기까지 소급하여 불분명했던 영역을 현재의 관점에서 자의적으로 획정하는 영토관 등 모두 ‘영토’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영토 지상주의’ 역사인식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조공·책봉 관계를 근거로 조공국을 중국의 ‘속국’으로 규정하여 중국이 지배했던 공간을 실제보다 넓게 보고 있는 점, ‘동북공정’의 추진배경인 ‘애국주의’, ‘중화민족 형성론’ 등 ‘국가주의(중화 우월주의)’가 강하다는 점,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을 내세워 주변 민족국가의 역사·문화 영역을 잠식하고 문화적 패권주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북공정’의 논리 속에는 팽창주의적 중화민족주의가 숨겨져 있다.

‘동북공정’의 역사적 논리는 주변 국가들과의 학문 교류나



▲ 당 후기 강역과 변강 각족의 분포도
발해를 당의 소수민족 정권으로 묘사하고 있다. 중국 중학교 교과서 『중국역사』 (인민교육출판사, 25쪽)

한중 역사 현안 바로알기

관련 유적들에 대한 공동조사 등을 기초로 도출해낸 ‘역사적 사실’에 입각하기보다는, 현재 중국이 처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 전략적 목적에서 나왔다. 따라서 ‘동북공정’의 역사적 논리는 관련 인접 민족국가로부터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특히 중국과 한반도 사이에 문화적·정치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

중국의 주장,
그리고
우리의 견해



3

중국의 주장, 그리고 우리의 견해

고조선사 문제



- ▶ 고조선은 기자조선→위만조선→한사군으로 이어지는 중국사다.
- ▶ 고조선은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를 이룩한 단군조선의 나라다.

*** 위만**
중국 한 초에 혼란을 피해 고조선의 서쪽 변방으로 망명했다가 나중에 정권을 찬탈하여 위만조선을 세운 사람

중국학자 중 일부는 은(殷)의 왕족인 기자(箕子)가 고진국(古辰國)으로 이주해 고조선을 세웠고, 뒤에 주(周)로 가서 신하의 예를 표했으므로 고조선은 주의

제후국이었다고 주장한다. 기자조선이 위만조선으로 교체되며, 한이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4군(郡)을 설치했으므로 고조선사는 중국사라고 한다.

그러나 기자조선은 문헌사료상으로나 고고학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중국측 주장의 근거인 『상서대전』은 한(漢) 때에 편찬된 사서로, 그 이전 중국사서에는 없던 기자에 관한 기록이 한 때에 들어 갑자기 나오게 된 것은 시대적 필요성 때문이다.

만약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이주해 와서 나라를 세웠다면 물질적인 흔적을 남기게 된다. 하지만 요동과 한반도 지역의 청동기문화는 중국과 다른 고유한 성격을 띠고 있으며, 성격 상으로도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은·주 때의 청동예기 등은 이 지역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비파형동검·미송리식 토기·고인돌 같은 독자적인 문화를 이룩한 것은 우리 역사서에 나오는 단군조선이다. 후에 연(燕)에서 온 위만이 정권을 탈취했는데 그것이 위만조선이다. 그런데 이 경우, 고조선의 일부 지배층만 교체되었을 뿐 국가의 정체성에는 변화가 없었다. 조선이라는 국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우거왕(右渠王) 때 조선상(朝鮮相) 노인(路人), 역계경(歷谿卿), 니계상(尼谿相) 참(參) 등과 같이 조선인으로 보이는 인물들이 고위직에 상당수 포진하고 있었던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위만조선도 고조선에 포함되는 것이다. 일연의 『삼

*** 한사군**
기원전 108~107년 고조선 땅에 설치된 중국 한의 낙랑군, 진번군, 임둔군, 현도군을 총칭



▲ 비파형 동검

한중 역사 현안 바로알기

『국유사』에서 새로운 조선인 위만조선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단군왕검의 조선을 고조선이라 칭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훗날 이성계가 세운 나라가 조선인 것도 우리가 고조선을 계승했다는 의미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알아볼까요?

하상주단대공정(夏商周斷代工程)

실제 연대를 알 수 없었던 서주 공화 원년(西周 共和 元年, 기원전 841년)에서 그 이전 하(夏) 왕조 성립시기까지의 절대 연대를 확정지으려 한 중국의 국가 연구 프로젝트로 중국 고대 왕조의 시간 범위를 확장시키는 사업이다. 2000년 하상주단대공정의 성과보고를 통해 하(기원전 2070~1600년), 상(기원전 1600~1300년), 상 후기(기원전 1300~1046년), 서주(기원전 1046~771년)의 연대를 확정하여 중국이 주변 어느 국가와 민족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국가를 세우고 문명을 이룩하였음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민족적 자부심과 자신감을 고무하고 민족적 응집력을 제고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하였으나, 객관적이지 않고 치밀하지 못한 연구방법으로 인해 국내외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폭넓게 제기되고 있다.

단대공정연표

왕조	왕	재위연도(기원전)
하(夏) 왕조		2070~1600년
상(商) 왕조	전기	1600~1300년

알아볼까요?

왕조	왕	재위연도(기원전)
상(商) 왕조	반경(盤庚)	1300~?년
	소신(小辛)	
	소을(小乙)	?~1251년
	무정(武丁)	1250~1192년
	조경(祖庚)	119~?년
	조갑(祖甲)	
	름신(廩辛)	
	강정(康丁)	?~1148년
	무을(武乙)	1147~1113년
	문정(文丁)	1112~1102년
	제을(帝乙)	1101~1076년
	제신(帝辛)	1075~1046년
서주(西周) 왕조	무왕(武王)	1046~1043년
	성왕(成王)	1042~1021년
	강왕(康王)	1020~996년
	소왕(昭王)	995~977년
	목왕(穆王)	976~923년
	공왕(共王)	922~900년
	의왕(懿王)	899~892년
	효왕(孝王)	891~886년
	이왕(夷王)	885~878년
	여왕(厲王)	877~841년
	공화(共和)	841~828년
	선왕(宣王)	827~782년
유왕(幽王)	781~771년	

중화문명탐원공정(中華文明探源工程)

하상주단대공정의 연구성과를 계승하여 연구범위를 시·공간적으로 확대하려는 중국 고대사·고고학의 국가적 프로젝트다. 하상주단대공정에서 확정한 하 왕조시대보다 앞선 문헌에서 전하는 이른바 ‘오제(五帝)* 시대 중국문명의 계보를 구축하려는 연구다(기원전 3500~2000년). 고고학적 증거에 입각하여 하 왕조 이전의 전설시대를 복원하여 중국의 오천년 문명사를 사실로써 입증하려는 것으로서, 황하 연변(黃河沿邊)에 염제(炎帝)와 황제(黃帝) 관련 대형 유적공원을 정비하는 등 허구의 역사를 실재했던 ‘사실’인 양 보이려는 시도들이 각지에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오제전설은 전국(戰國)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사실과는 분리되어 이해해야 할 신화에 속한다.

* 오제

중국 상고 시대의 다섯 군주로, 황제(黃帝), 전욱(顓頊), 계곡(帝嚳), 요(堯), 순(舜)을 가리킨다는 설도 있고, 소호(少昊), 전욱, 계곡, 요, 순을 가리킨다는 설도 있다. 모두 중국 최초의 국가라 전해지는 하(夏) 왕조 이전의 군주로서, 문명의 개척자이며 수레 등 각종 기기(利器)의 발명자로 알려지기도 하나, 관련 전설의 내용에는 신화적 색채가 농후하다.



▶ 염제·황제상의 대형 유적 공원

알아볼까요?

요하문명론(遼河文明論)

‘요하문명론’은 요하지역에서 일어난 고대 문명과 문화의 발전에 관한 논의다. 그 첫머리를 장식하는 홍산문화(紅山文化)는 일종의 신석기문화이나, 돌로 쌓은 대형 무덤과 ‘여신묘(女神廟)’로 불리는 신전 건축 등을 상당수 남겨놓은 비교적 발달한 문화를 보유하고 있었다. 중국학계는 이를 근거로 이 시기에 이미 발달한 권력과 계층화된 사회를 가진 ‘문명’이 등장하였다고 본다. 또한 이 문화가 황하 유역의 양소(仰韶)문화 등과 교류하면서 ‘중국문명’의 원형을 창조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문화가 중국인이 공통의 조상으로 모시는 황제(黃帝) 부족이 창조한 문명이라고 본다. 요하 유역의 홍산문화에서 추정되는 발달한 문화적 요소에 입각해서 중국 최초의 문명이 황하가 아닌 요하 유역에서 성립되었음을 입증하려고 하는 이 시도는 ‘문명’ 개념의 무리한 적용으로 논란의 여지가 많다.



▲ 홍산문화-옥륜



▲ 홍산문화-옥저륜



▲ 돌로 쌓은 홍산문화 유적



▲ 홍산문화 - 여신묘



▲ 홍산문화 - 여신상

고조선사 문제



- ▶ 진시황제의 장성은 대동강까지 이르렀다.
- ▶ 장성은 중국 문헌과 유물을 통해 요하까지만 축조된 것이 명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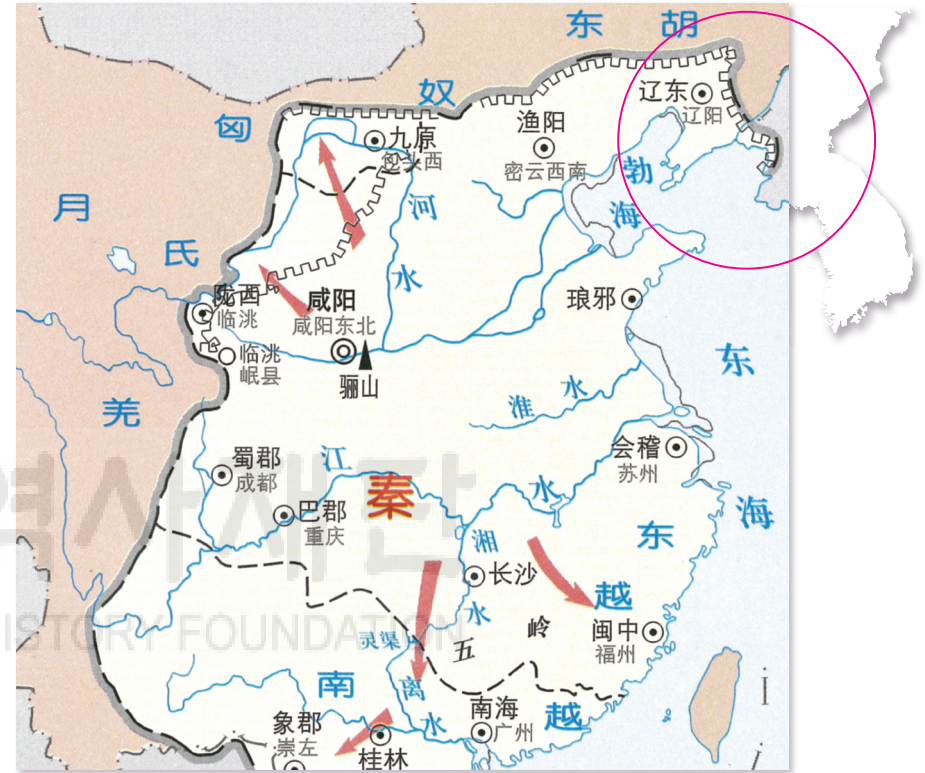
* **진시황제**
전국시대 진의 왕으로서, 여러 나라로 나뉘어져 있던 중국을 처음으로 통일하여 최초의 황제가 된 인물. 재위연간은 기원전 246~210년

* **사기**
한 무제 때의 궁중 사가인 사마천이 상고시대의 황제로부터 한 무제 태초연간(기원전 104~101년)까지의 2,600년에 걸친 중국 역사를 기록한 중국 고대의 대표적인 통사

중국에서는 춘추전국시대의 혼란을 통일한 진시황제가 조성한 장성이 북한의 청천강, 더 나아가 대동강 하구까지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라 중국 역사 교과서와 지도집에는 대동강까지 장성표시를 해두었다.

이것은 고조선사를 중국사라고 하는 주장과 일맥상통하며, 고조선의 영역범위를 축소하고 있는 명백한 역사왜곡이다.

진의 만리장성에 관한 가장 신뢰할만한 사료인 『사기』^{*}에는 진 장성의 동쪽 끝이 요동까지 이르렀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사기정의(史記正義)』에는 “요동군은 요하의 동쪽에 있는데, 진시황제가 장성을 쌓아 동쪽으로 요하에까지 이르렀다”라고 하여, 장성이 사실상 요하를 넘지 못하였다고 단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장성 유적이 요하 서쪽의 부신(阜新) 지역까지는 명확히 나타나지만, 요하 동쪽에서



▲ 중국교과서의 장성이 표시된 지도
장성이 고조선의 영토까지 축조된 것으로 확장, 왜곡되어 있다.

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게다가 중국에서 연과 진이 축조한 장성이라고 주장하는 대령강 일대의 장성은, 최근 조사 결과 고려 시대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한반도 서북부 지역까지 장성을 표시한 중국교과서는 수정되어야 한다.

알아볼까요?

‘만리장성’의 연장 문제

2012년 6월 5일 중국 국가문물국은 중국 ‘역대장성(歷代長城)’의 총 길이가 2만 1,196.18km라고 발표하였다. ‘역대장성’ 및 장성 관련 유적은 동쪽으로는 헤이룽장성[黑龍江省]부터 서쪽으로는 신장(新疆) 위구르자치구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장성 유적은 성벽, 참호, 부속건물, 관보(關堡) 및 관련 시설을 포함하여 모두 4만 3,721곳에 달한다고 한다. 이 발표는 ‘장성보호공정’의 사업에서 나온 결과로, 중국 국가문물국과 국가측량국이 주관한 것이었다.

중국의 장성 발표가 논란을 불러일으킨 까닭은 그 조사 결과가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장성에 대한 인식과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당초 유네스코 홈페이지에는 중국의 장성에 대해 허베이성[河北省]의 산하이관[山海關]에서 간쑤성[甘肅省]의 자위관[嘉峪關]에 이르는 길이 6,000km의 군사적 구조물이라고 정의해왔다. 이 6,000km는 약 1만 리(里)를 상회하기에 ‘만리장성’이란 이름으로 불리우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의 발표는 이 장성의 길이를 약 4만 리까지 늘린 것이어서 기존의 상식과 크게 다르다. 그래서인지 중국은



▶ 산하이관에서 바라본 장성

이 장성에 ‘만리장성’이란 이름 대신 ‘역대장성’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붙였다. 하지만 이 ‘역대장성’에는 한족(漢族) 이외에 전근대 동북아시아에서 활약한 모든 민족들이 세운 성(城)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논란은 더욱 증폭되었다.

특히 우리의 경우, 오랜 세월에 걸쳐 만주를 지배한 고구려·발해의 여러 성곽까지 ‘역대장성’에 포함됨으로써, 우리 조상이 남겨놓은 유적이 중국의 유적으로 둔갑해 버리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고구려가 쌓은 지린성(吉林省) 소재 라오벤강(老邊崗) 흙(土) 장성과 발해가 축조한 헤이룽장성 소재 무단장(牧丹江) 변장(邊牆) 등이 ‘역대장성’에 포함되어 있다. 고구려의 ‘천리장성(千里長城)’은, 임박한 당(唐)의 침략에 맞서기 위해 축조되었다고 사서에 전해진다. 그러던 고구려의 장성이 어느 틈엔가 고구려인이 상대했던 당의 장성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역대장성’이 역사적 사실과 유적의 고유한 성격을 무시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면 중국의 ‘역대장성’은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일까. 국가문물국의 ‘역대장성의 총길이’ 발표에 뒤이어, 중국 언론들이 ‘역대장성’의 이름 대신 ‘만리장성’을 언급하고 있음에서 그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중국인의 상징이자 자랑거리인

‘만리장성’의 이미지를 덧씌워 ‘역대장성’을 중화민족의 상징으로 만들려는 시도인 것이다. 또한 ‘역대장성’이 펼쳐진 광활한 북방 지역이 원래부터 중국의 영토였다는 점을 확인시키고자 하는 속셈으로 보인다. 즉 세계문화유산 ‘만리장성’이 어느새 ‘통일적다민족국가론’에 부합하는 상징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장성보호공정’은 ‘동북공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통일적다민족국가론’의 역사인식이 반영된 사업임에 분명하다. 그런 의미에서 ‘동북공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알아볼까요?

장성보호공정(2005~2014)

중국 각지에서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는 장성 유적을 보호하고, 그에 대한 이용을 규범화하려는 목적으로 지금 남아 있는 장성자원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판정을 시도하는 사업이다. 국가문물국과 국가측회국이 주관하고 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유적 보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이미 2009년 '명(明) 장성'의 길이를 새롭게 확정했던 전례에서 확인된 바 있다. 유적 보호의 명분을 내세우고 '역대장성'이란 이름을 앞세우고 있으나, 장성을 중화민족의 상징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 국가문물국**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산하의 행정기구. 문화재와 박물관에 관련된 각종 사업을 관리하고 감독.

*** 국가측회국**

중국 국토자원부 소속의 행정기관으로 중국 내 측량 사업을 담당.

통일적다민족국가론(統一的多民族國家論)

중국은 한족과 55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국가다. 한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지만 55개 소수민족도 그 규

모와는 무관하게 전략적 요충이며 자원의 보고인 지역에 폭 넓게 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소수민족의 분리적 경향을 차단하는 것이 과제다. 이를 위해 중국은 '통일적다민족국가론'이라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창출하였다. 현재 중국 내의 모든 민족이 중화민족을 구성하며, 이 중화민족은 최근에 들어 비로소 형성된 존재가 아니라 아득히 먼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실체라고 주장한다.

▼ 중국이 명대 장성의 동쪽 끝이라고 주장하는 호산장성(虎山長城)
'만리장성'을 연상시키는 벽돌의 긴 성벽으로 복원하여 마치 당시에도 이러한 성벽이 존재했던 양 보이고 있다.



부여사 문제



- ▶ 부여족은 한국민족과 아무 관계없는 중국 고대 소수민족 중 하나였다.
- ▶ 부여는 고대 한국민족의 원류인 예맥족이 세운 나라다.

중국은 부여족이 산둥(山東) 지역에서 발원하여, 일찍부터 중국에 예속됐기 때문에 중국의 지방 문화 중 일부 또는 선비족의 문화라고 주장한다. 이는 부여와 한국사와의 관계를 끊기 위한 ‘동북공정’식 주장에 불과하다.

부여는 고조선·고구려·옥저·동예 등 주류를 형성한 고대 한국민족인 예맥족이 세운 나라다. 중국 사서인 『삼국지』에도 부여가 예맥 땅에 있었고, 고구려를 맥인(貊人) 또는 예맥이라고 칭하면서, 언어와 법칙이 대체로 부여와 같은 부여별종(夫餘別種)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함경도 일대의 동옥저 사람을 예민(濊民), 동해안 일대의 정치 세력을 예(濊)라 불렀고, 요동 지역에 고구려로 편입된 양맥(梁貊)이 있던 점에서 요동과 한반도 북부 지역에는 예맥족이 토착족으로 살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종족상으로 같을 뿐만 아니라 동족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고구려와 백제는 서로 자신들이 부여의 정통 계승자라고 주장했다. 고구려는 건국시조인 주몽이 부여로부터 내려왔다고 대내외에 표방했고, 백제도 427년 북위에 보낸 외교문서에서 백제와 고구려가 모두 부여에서 비롯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백제 왕족의 성은 부여씨·여씨·해씨였고, 성왕 때는 국호를 부여로 고치기까지 하였다.

고고학적으로도 부여사는 중국사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된다. 부여 지역에서는 중국 문화와 전혀 다른 독자적인 문화가 발전하였다. 특히 제2송화강 중류유역에서 발전한 서단산문화(西團山文化)는 요동과 한반도의 청동기 문화와 매우 유사하다.

이런 점들은 부여국이 우리의 고대 국가이고, 부여족이 고대 한국민족인 예맥족으로, 분명한 한국사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실이다.

* 서단산문화
기원전 10~4세기까지의 기간 동안 제2송화강 중류유역에서 발전한 청동기 문화



▶ 신수패식
부여의 특징적 유물

고구려사 문제



- ▶ 고구려는 중국의 고대 민족이 세운 중국 고대의 지방정권이다.
- ▶ 고구려는 종족의 기원과 역사 계승 의식 모두에서 한국사의 일원임을 보여준다.

중국학자들은 민족의 기원이 국가와 역사의 귀속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여긴다. 이에 입각하여 중국의 고대 민족이 고구려를 세웠으므로 고구려사는 중국사라고 주장한다. 중국학자들은 고구려의 민족 기원을 예맥(濊貊)·부여(夫餘)·고이(高夷)·상인(商人)*·염제족(炎帝族)에서 찾는다. 최근에는 이들 모두와 한족(漢族)이 결합해서 고구려를 구성했고, 그중 한족이 중심이었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곧 예맥을 포함한 고구려의 구성원 모두가 중국의 고대 민족이었으므로, 고구려는 중국 고대의 지방정권이라는 주장이다.

* 상인(商人)
상(商)은 은(殷)이라고도 불리는데, 그 나라 사람들 스스로는 상이란 국호를 더 많이 사용했다고 한다.

그러나 여러 역사서에 고구려는 중원에서 건너온 민족이 아닌, 요동과 한반도 중북부 일대의 토착족인 예맥족이 세운 나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예맥은 중국 북방에서 활동했던 맥족(貊族)과는 별개의 존재로서, 삼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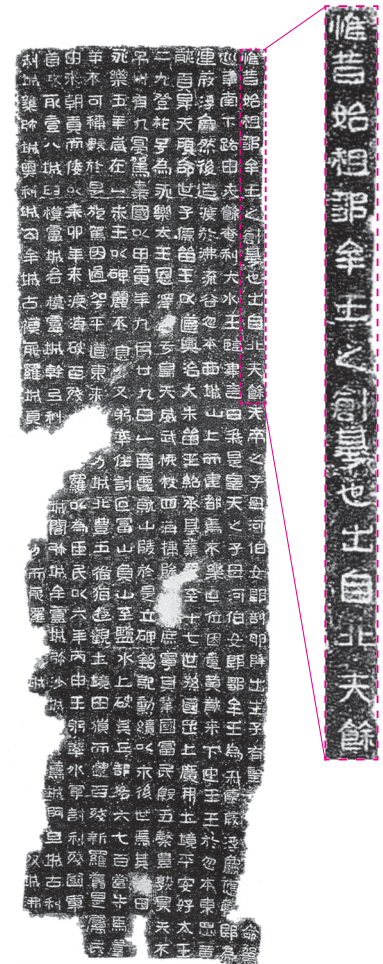
의 한족(韓族)과 같은 동이족에 속한다.

그리고 민족의 기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구려인들이 누구와 역사적 경험을 같이했고, 어느 나라에서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같은 종족이라 해도 동족 의식을 갖지 않고, 후세 사람들이 선조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 역사는 계승되지 않는다. 고구려 사람들은 스스로 중국인들과 별개의 존재라 여겼고, 신라인·백제인·동부여인은 자기들과 같은 천하에 사는 속민이라고 생각했다.

고구려·백제·신라 삼국은 서로 투쟁하고 교류하면서 역사적 경험을 공유했고 마침내 통합의 길로 나아갔다. 신라의 통일 의식, 발해, 후삼국, 고려의 성립은 고구려사가 한국사에 속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 광개토태왕릉비 탁본

'옛날 시조 추모왕이 나라를 세우시니 북부여 출신으로'라고 고구려를 세운 이들이 중원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아니라 현재의 지린시(吉林) 일대에 자리잡고 있던 북부여 출신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고구려사 문제



- ▶ 고구려는 고대 중국의 영토 안에서 성립·발전·멸망했으므로 중국의 지방정권이다.
- ▶ 고구려는 중국 세력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건국·발전한 독립국이다.

중국에서는 고구려가 한사군 중 하나인 현도군 경내에서 건국되었고, 여러 번의 천도에도 불구하고 한사군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으므로, 중국의 지방정권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고구려는 현도군 경내에서 건국된 것이 아니라, 현도군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건국하였고, 나라를 세운 이후 한 번도 중국의 영토 안에 속했던 적이 없었다. 따라서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정권이라는 주장은 중대한 역사 왜곡이다.



▲ 국내성 성벽

돌로 쌓은 성벽 아래에서 토성의 흔적이 발굴되었다. 중국학자들은 이를 한의 토성이라 여겨 한 군현이 들어섰던 자리에 고구려가 국내성을 쌓은 것으로 이해하고, 고구려가 한 군현의 경내에서 건국했다는 증거의 하나로 제시해왔다. 그러나 국내성은 추가 발굴조사에서 고구려인이 쌓은 토성으로 밝혀졌다.

확실히 짚어 볼까요?

고구려가 한사군과 별개인 독립국이었음을 입증하는 사료

- 『삼국지(三國志)』 : 현도군의 동쪽 경계에 작은 성을 쌓아 그 가운데 조복과 의책을 놓아두면 세시(歲時)에 와서 가져감 → 현도군과 고구려 사이에 경계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 조복과 책을 놓아두면 와서 가져갔다는 것은 정치적 지배관계가 아니었으며, 고구려가 중국 영토 밖의 독립국이었음을 보여줌
- 『삼국사기』 : 고구려와 중국과의 전쟁기록들 → 고구려가 한사군의 영역 밖에 있음을 보여줌

고구려사 문제



- ▶ 고구려는 중국과 조공·책봉 관계를 맺은 지방정권이다.
- ▶ 조공·책봉은 고대의 외교형식으로, 이것만으로 고구려를 중국의 지방정권이라 할 수 없다.

중국학자들은 고구려가 중국에 조공을 바치고 책봉을 받았으므로 중국의 지방정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공·책봉은 전근대시기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이 중국과 맺었던 외교형식으로 조공을 하고 책봉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속국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주변 국가들은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 때문에 적극적으로 중국과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다. 중국 학자들도 이러한 점을 알고 중국과 다른 나라의 관계를 볼 때, 명분상·자구상의 조공·책봉 관계와 실제 상황을 구분해서 파악한다. 그런데 유독 고구려에 대해서만 실상을 왜곡하고 있다.

조공·책봉이 정착되는 중국의 남북조 시기에 고구려는

오히려 남조·북조와 대등한 관계를 유지했다. 고구려는 두 왕조와 모두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지만,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두 왕조와의 관계를 조정했다. 그러나 어느 왕조도 고구려에 제재를 가하거나 정치적으로 간섭할 수 없었다. 이는 조공·책봉이 중국의 지방정권임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지 못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만약 조공·책봉 관계만으로 중국의 지방정권이라 간주한다면, 신라·백제는 물론이고 일본·베트남·고려·조선 등 지역과 시대를 달리하는 거의 모든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까지도 모두 중국의 지방정권이라고 보아야 옳다.



확실히 짚어 볼까요?

고구려사에 나타난 조공·책봉

- 평양 천도 이전까지 고구려와 중국 사이에는 평화기간 보다는 전쟁기간이 더 길었고, 책봉도 없었음. 이는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정권이 아닌 독립국임을 증명함
- 고구려는 북위(北魏)와의 조공·책봉 관계에도 불구하고 북위군에 맞서 북연왕(北燕王) 풍홍(馮弘)을 영입하였고, 송환 요구를 거부하였음. 북위와 적대하고 있던 남조의 제(齊)와 사절을 교환, 월경(越境)외교를 전개하였음. 조공·책봉 관계의 구속력이 어떤 수준이었는가를 보여줌

한중 역사 현안 바로알기

고구려사 문제



- ▶ 고구려와 수·당 간의 전쟁은 중국 내부의 통일전쟁이었다.
- ▶ 고구려와 수·당 간의 전쟁은 국가 간에 일어난 국제전이였다.

‘동북공정’의 논리를 보면, 수·당의 고구려 침략을 중국 내부의 통일전쟁이자, 지방정권의 반란을 진압한 사건이었다고 주장한다. 또 수 양제·당 태종이 고구려 침공의 명분으로 내세운 조서 내용을 비판없이 받아들여, 고구려가 수·당과의 신속(臣屬) 관계를 깨뜨려 이를 응징하기 위해 고구려를 정벌했다며 전쟁의 당위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수·당의 고구려 침략은 중원 통일 후 동아시아 일대에 중화세계를 구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고구려를 정복하려고 일으킨 침략전쟁이다. 수·당은 자국 중심의 패권주의를 실현하려 했고, 고구려는 독자적 세력권을 지키려고 했으므로 상호 간에 타협의 여지가 없었다. 그리고 신라·백제·일본·돌궐 등의 인접 세력들이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어느 한쪽에 가담하게 되면서 두 세력권 간의 국제전으로 발전하였던 것이다.



▲ 득리사산성 전경

요동반도 남부에 남아 있는 대표적인 고구려산성으로, 다듬은 성돌로 쌓아올린 성벽이 잘 남아 있다.

확실히 짚어 볼까요?

고구려와 수·당 간의 전쟁이 국제전이었음을 증명하는 사실

- 수는 남북조를 통일한 후 중원 통일의 완성을 이루었다고 했음 → 이는 고구려가 수의 지방정권이 아니었음을 인정한 것
- 『구당서』와 『신당서』에 “당 고조가 고구려와 중국은 별개의 두 나라인데, 굳이 지배하려 들 필요가 있느냐”고 말한 기록이 나옴
- 당의 힘만으로 고구려 정복이 불가능하자, 신라와 연합하여 고구려를 멸망시켰던 것은 이 전쟁이 국제전임을 보여주는 것

고구려사 문제



- ▶ 고구려 유민 중 중국인이 된 사람이 더 많으므로 고구려는 중국사다.
- ▶ 역사 계승은 사람 수가 아닌, 계승의식과 부흥의지로 평가된다.

‘동북공정’에서는 고구려 유민 중 상당수가 중국으로 들어가 한족에 흡수되었기 때문에 고구려사는 중국사라고 주장한다. 고구려 유민 중 2만 8천여 호나 되는 사람들은 당에 의해 중국 내지로 강제 이주되었고, 일부는 고구려 옛 땅에 남아 있다가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하자 그 아래로 들어갔다. 일부 유민들은 당의 지배를 피해 돌궐로 도망가거나, 일본으로 건너갔다. 신라로 간 사람들도 많았다. 중국에서는 고구려 유민의 1/7만 신라로 내려가 한국인의 선조가 되었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중국인이 되었으므로 고구려사는 중국사라고 주장한다.

*
보덕국
674년 안승(安勝)이 전북 익산 지방에 세운 고구려 부흥국. 683에 신라에 흡수되었다.

그러나 당으로 간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강제로 끌려간 것이며, 그 곳에서 사라져 갔다. 하지만 신라로 내려온 사람들은 삼국 간 교류를 통해 쌓은 동류의식에 바탕하여 신라를 선택했고, 고구려 부

흥의지와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고구려 유민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당과 신라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다. 당은 고구려 부흥을 막기 위해 유민들을 강제로 집단 이주시켰다. 반면 신라에서는 유민을 받아들여 보덕국^{*}을 세워주고, 삼국을 통일했음을 강조했다. 이는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의 역사도 계승했다는 것을 표방한 것이다. 이러한 고구려 계승의식은 발해, 후삼국과 고려를 거쳐 오늘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 나팔입 향아리
1988년 몽촌토성에서 출토된 고구려의 대표적 토기

확실히 짚어 볼까요?

고구려사의 한국사 귀속을 입증하는 결정적 요소

- 고구려 부흥군의 활동
- 고구려 부흥국인 보덕국의 존재
- 삼국통일을 강조한 신라의 ‘일통삼한의식’
- 고구려의 계승국임을 표방한 발해, 후고구려, 고려의 존재
- 고구려·백제·신라를 한국사로 정리한 역사서의 존재
※ 『삼국사기』, 『삼국유사』, 『제왕운기』, 『동국이상국집』 등은 고구려사를 한국사로 귀속·계승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임

고구려사 문제



- ▶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가 아니다.
- ▶ 중국인들도 고려가 고구려의 계승국이라고 기록하였다.

중국학계에서는 고구려사와 한국사와의 계승관계를 차단하기 위해 고주몽이 세운 고구려와 왕건이 세운 고려는 이름만 비슷할 뿐 서로 계승관계가 없는 타국의 역사라고 한다. 고구려는 오늘날 중국인의 선조가 세운 중국 역사상의 나라지만, 고려는 오늘날 한국인의 선조인 신라 후손들이 세운 나라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송사(宋史)』 편찬자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가 고려라고 기록한 것 자체가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오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했음을 국호로 나타냈고, 건국 초부터 고구려의 수도였던 서경(평양)을 중시하면서 북진정책을 추진했다. 고려 사람들은 고구려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서희 장군이 거란장수 소손녕을 만나, 거란이 고려의 선조인 고구려 땅을 차지하고 있다고 조목조목 비판함으로써 거란군을 물리쳤던 일화는

고려 사람들의 고구려 계승의식을 잘 보여준다.

고려는 전왕조의 역사로서 고구려·백제·신라의 역사를 정리한 『삼국사기』를 펴냈다. 고려 사람들에게는 고구려사가 고려의 선대 역사라는 것이 기본 상식이었던 것이다. 이런 상식은 역대 중국 역사학자들도 가지고 있어서, 1345년에 편찬된 『송사』에 고구려-고려로 계승관계를 서술하였고, 이후 역사서에서도 이를 따랐다. 그리고 중국 정사에서는 고구려사를 시종 외국열전에 실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후손들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선조가 서술한 역사서까지 부정하면서 상식을 바꾸려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고려, 곧 코리아다. 고려가 부흥시키고 계승한 국호를 지금도 그 후손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관계없는 다른 나라의 국호를 계승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없다. 고구려사가 한국사에 속한다는 사실은 코리아라는 국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입증되는 것이다.

▼ 장군총 전경



발해사 문제



- ▶ 발해는 말갈인의 나라였으므로 중국 고대 소수민족이 세운 지방정권이다.
- ▶ 발해는 고구려 유민이 세운 나라로 고구려를 계승한 독립국이다.

중국학계는 건국자인 대조영뿐 아니라 발해의 주민이 말갈인이라 주장한다. 『신당서(新唐書)』에서 발해는 본래 속말말갈(粟末靺鞨)이라 한 기록을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다. 또한 발해의 주민 구성을 보더라도 말갈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말갈인이 발해의 건국에 참여하였고 그 주민에 포함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말갈인은 어디까지나 피지배층이었고 나라를 세우고 국정을 운영하는 지배층은 고구려 유민이었다. 『구당서(舊唐書)』에는 ‘발해말갈 대조영은 고려별종(高麗別種)이라 하여 분명히 고구려계임을 밝히고 있어, 고구려 유민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발해인은 누구였는가’라는 문제는 발해인이 자신의 종족 계통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면 분명해진다. 발해는

일본에 보낸 국서에서 자신들이 고구려의 옛 터를 회복하고, 부여(夫餘)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하였고, ‘고려국왕(高麗國王)’ 혹은 ‘천손(天孫)이라 하여 고구려를 계승했음을 보여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발해인 스스로가 자신들은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여겼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인 것이다.



확실히 짚어 볼까요?

고구려 유민이 발해를 세웠음을 증명해 주는 사실들

- 『구당서(舊唐書)』의 ‘고려별종(高麗別種)’이라는 말은 대조영과 그 건국주체가 고구려 유민이라는 의미
- 일본에 보낸 국서에서 부여(夫餘)의 전통을 가지고, ‘고려국왕(高麗國王)’ 혹은 ‘천손(天孫)’이라 자칭함
- 발해인의 성씨 뿐 아니라 지배층의 다수가 고구려계였음
- 고려시대 이승휴의 『제왕운기(帝王韻紀)』 「東國郡王開國年代」에서 발해를 한국사로 서술함

발해사 문제



- ▶ 발해의 국왕이 당의 책봉을 받았으므로 발해는 당의 지방정권이었다.
- ▶ 발해는 책봉과 관계없이 왕위 계승이 이루어졌던 독립국가였다.

중국학자들은 당이 발해에 흘한주(忽汗州)를 두고 발해의 국왕을 발해군왕 흘한주도독으로 책봉하였음을 들어 발해가 당에 예속된 지방정권이었다고 한다.

발해의 국왕이 당의 책봉을 받았다는 사실이 발해가 당의 지방정권이었음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발해와 마찬가지로 신라와 일본도 당의 책봉을 받고 사절을 보내 조공하였다. 중국학계의 논리에 따르면 신라와 일본도 당의 지방정권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중국학자들은 이 대목에서 입을 다문다. 사실 여부를 떠나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발해는 국왕을 '황상(皇上)'이라 부르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여 황제국의 면모를 갖추었던 독립국가였다. 또한 당에 유학을 간 발해인들은 빈공과(賓貢科: 외국인을 위한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알아볼까요?

서희와 유득공

993년(고려 성종12) 거란의 소손녕(蕭遜寧)이 고려에 침입하자, 고려의 내사시랑(內史侍郎) 서희(徐熙)가 담판을 통하여 도리어 강동 6주(州)를 돌려받는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 이때 소손녕은 거란이 고구려의 옛 땅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고려가 그 땅의 일부를 점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서희는 국호를 고려(高麗)라 하고 평양(平壤)에 도읍을 둔 것이야말로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고 반박하였던 것이다.

유득공(柳得恭)은 그의 대표적 역사 저술인 『발해고(渤海考)』에서 백제가 망하고 고구려가 망하자, 신라가 그 남쪽을 영유하고 그 북쪽을 발해가 영유하였으니, 바로 남북국이라고 하였다. 마땅히 남북국사(南北國史)가 있어야 했음에도 고려가 이를 편찬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일이라 하고, 대씨(대조영)는 고구려 사람이고, 그가 차지했던 땅은 고구려 땅이라며,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발해사 문제



- ▶ 발해와 당의 문화적 차이는 중앙과 지방의 차이에 불과하다.
- ▶ 발해는 고구려 문화를 계승한 바탕 위에서 당의 문물을 수용하였다.

중국학자들은 발해의 문화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말갈인의 문화가 발해 문화의 바탕을 이루며, 건국 후에는 당 문화의 강한 영향 아래 발해 문화가 발전하였다. 발해가 당에 보낸 수많은 사절을 통하여 당 문화의 수입에 힘을 쏟았던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또한 발해는 당의 지방정권이므로, 그 문화도 국가적 차이가 아니라 중앙과 지방의 차이에 불과하다.

발해의 문화에 말갈이나 당 문화에서 유래한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고구려 문화의 영향이다. 가령 발해의 수도였던 상경성(上京城)이나 일본과의 교통로에 있던 현재의 연해주 크라스키노 성은 남아있는 성벽, 기와, 불상의 축조방법이나 온돌을 통해서 고구려와의 관련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중국 길림성 화룡(和龍)의 용해(龍海)고분군에서는 고구려 특

유의 관모(冠帽)인 조우관(鳥羽冠)과 매우 유사한 관모가 나와 발해와 고구려 문화의 유사성을 재확인해 주고 있다.

발해에는 당과의 교통로 이외에 신라도(新羅道), 일본도(日本道), 거란도(契丹道)가 있었다. 발해는 당뿐만 아니라 당시의 동아시아 각국과 교류하였던 것이다. 이로 보아 발해 문화는 고유의 것에 더하여 당 문화를 비롯한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문화와 영향을 주고받았다고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발해 금제 관모

확실히 짚어 볼까요?

발해 문화의 독자성을 보여주는 사례들

- 왕은 가독부(可毒夫), 성인(聖人), 황상(皇上)이라 하고, 왕비는 황후(皇后)라고 칭함
- 3성(선조성·중대성·정당성)과 6부(총·인·의·지·예·신부)의 명칭과 운영방식이 당과 달리 발해 특유의 것임
- 정효공주묘(貞孝公主墓)와 같이 무덤 위에 탑을 쌓아올린 묘제는 주변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발해만의 독특한 문화임



▲ 크라스키노성 원경(발해 영주성으로 추정)



▲ 크라스키노와 발해의 강역

발해사 문제



- ▶ 발해가 거란의 요에게 멸망당하였으니 발해사는 중국사다.
- ▶ 옛 발해의 영토 여기저기에서 부흥운동이 이어졌으며, 발해 유민의 고려 이주가 200년간 지속되었다. 뿐만 아니라 발해 유민을 수용한 고려는 발해 계승의식을 보여주었다.

중국학자들은 발해가 요(遼)에 망한 뒤, 유민 대부분이 요의 백성으로 살아갔고 고려(高麗)로 들어간 이들은 소수였다는 점을 들어 발해사를 중국사라고 주장한다. 발해가 요에게 망하였고 거란의 요는 현재의 중화 민족으로 융화되었으니 발해사는 중국사라는 입장이다.

발해의 마지막 왕 대인선(大諲諲)이 요에 항복하였지만, 발해인들은 부흥운동을 일으켜 요의 지배를 거부하였다. 발해 유민의 부흥운동은 기록에 남아 있는 것만 살펴봐도 후발해(後渤海)·정안국(定安國)·흥요국(興遼國)·대발해(大渤海) 등이 있고 후발해와 정안국의 존속기간은 수십년을 넘고 있다. 발해 유민이 요의 지배에 거세게 항거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발해의 세자 대광현(大光顯)이 수만 호의 백성을 이끌고 고려로 들어왔다는 사실은 발해인들이 고려를 어떻게 여겼는지를 잘 보여준다. 『고려사(高麗史)』 기록에는 대광현 이외에도 발해 유민의 고려 이주가 예종 11년(1116)까지 이어지고 있다.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의 집단적 이주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고려의 발해 유민에 대한 처우는 발해와 고려의 계승관계를 잘 보여준다. 발해 멸망 후 고려 태조는 발해를 친척의 나라라고 하였으며, 대광현에게는 왕씨 성을 내려주고 조상의 제사를 모시도록 하였다. 한편 요가 사절을 보내오자 발해를 멸망시킨 무도한 나라라고 하고 수교를 거부하였다. 유명한 만부교 사건이 이때의 일이다.

▼ 발해의 석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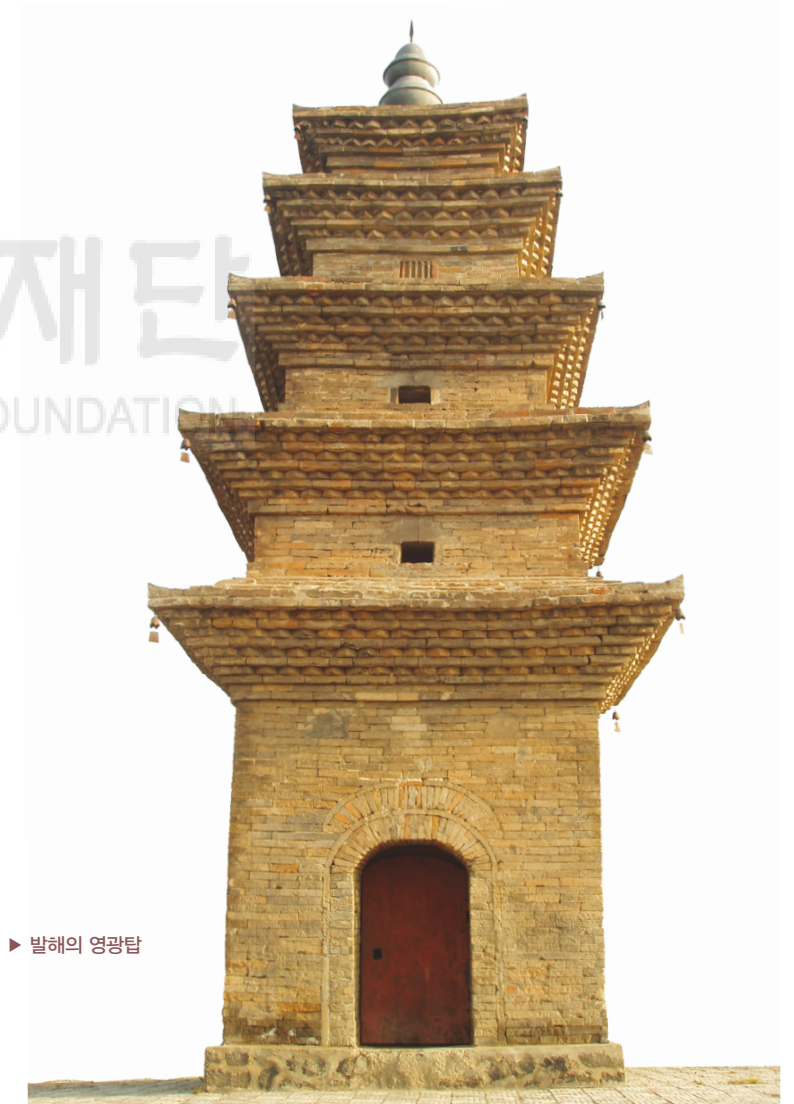
알아볼까요?

만부교(萬夫橋)사건

고려 태조 25년(942) 요 태종이 사신을 보내오자, ‘거란은 구맹(舊盟)을 돌보지 않고 발해를 쳐서 멸한 무도한 나라이므로 결연할 수 없다’고 하고 사신 30명은 섬으로 귀양보내고 선물로 가져온 낙타는 만부교 아래에서 굶겨 죽였다.



▲ 러시아 크라스키노 성터에서 발굴된 온돌 발해가 고구려 문화를 계승하였음을 보여준다.



▶ 발해의 영광탑

백두산 문제



- ▶ 백두산정계비는 원래 소백산에 있었다.
- ▶ 백두산정계비는 세워질 때부터 1931년까지 백두산 기슭에 있었다.

중국에서는 백두산정계비^{*}를 소백산에서 백두산으로 옮겼다는 ‘정계비 이동설’을 주장하여 국경문제에 새로운 파문을 던지고 있다. ‘정계비 이동설’에 따르면 당시의 기록과 지형, 경계 표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두만강이 시작하는 지류는 홍단수(紅丹水)고 백두산정계비의 원래 위치는 소백산 정상이다. 정계비 건립 직후 조선측 관리들이 정계비를 백두산 남쪽 기슭으로 옮기고 정계비와 토문강 사이에 목책·돌무더기·흙무더기 같은 경계 표지를 설치하여 경계를 조작하였다고 한다. 19세기 이래 국경회담에서 백두산정계비를 기준으로 경계를 정했음을 생각할 때, 이 논리대로라면 백두산에서 남쪽으로 20km가량 내려온 소백산이 정확한 국경이 되는 셈이다.

‘정계비 이동설’은 이미 일·청 간의 간도문제 교섭 당시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인데, 최근에는

* 백두산정계비
1712년 조선과 청국의 조사단이 압록강과 두만강 상류지역을 조사하고 백두산 동남쪽 기슭에 세운 비석이다. 비석에 새겨진 ‘서쪽으로는 압록강을 경계로 삼고,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경계로 삼는다’라는 구절 중 토문강이 어느 강을 가리키는 가라는 점이 논란이 되었다. 1931년 비석은 사라지고 현재는 받침돌만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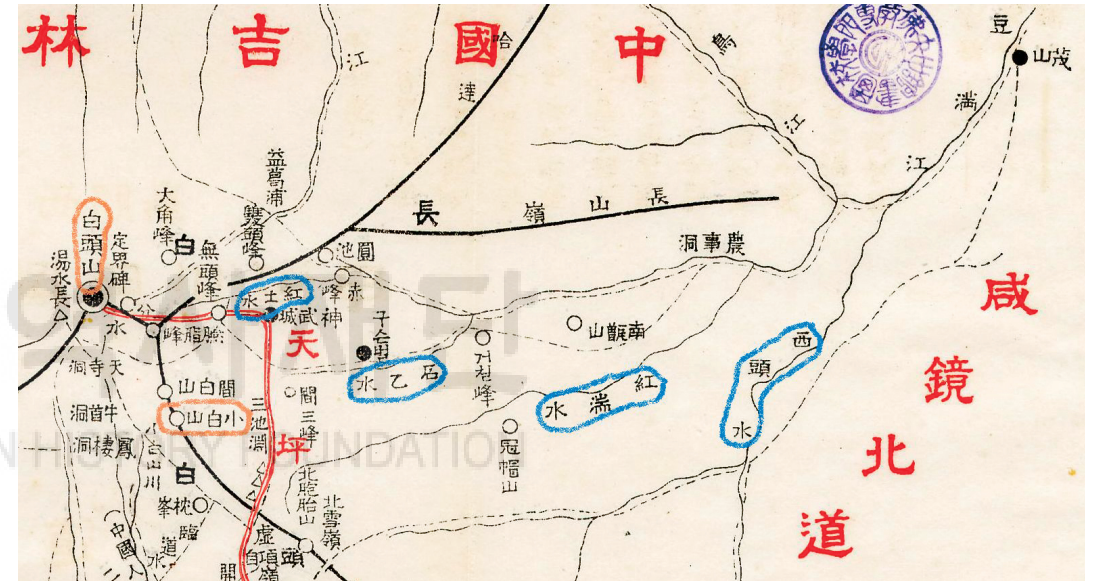
▲ 「백두산정계비도」(1712년, 서울대 규장각 소장) 설명
이 지도는 백두산정계비를 세운 직후 청의 관리 목극등(穆克登)이 수행원에게 백두산 및 압록강, 두만강의 지류를 그리게 하고 이를 모사하여 조선의 관리 박권(朴權)에게 건네준 것이다. 백두산 기슭에 세워진 정계비가 강원(江原)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소백산은 정계비 서남쪽에 대각봉, 연지봉과 나란히 별도의 봉우리로 표기되어 있다.

이를 더욱 정교화하여 4차례에 걸친 위치 이동이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당시의 기록이나 고지도를 살펴보면 ‘정계비 이동설’이 허구라는 점을 한눈에 알 수 있다. 백두산정계비 건립에 참가했던 사람들의 기록이나 백두산정계비 건립 이후 백두산에 오르면서 백두산정계비를 보았던 사람들의 기록에서 백두산정계비의 위치는 대체로 일치한다. 당시



▲ 「대동여지도」에 표시된 정계비의 위치(1861년)

사람들은 백두산에 오르기 위하여 삼지연, 소백산, 연지봉을 거쳤으며, 연지봉을 지나 백두산에 오르는 도중에 백두산정계비를 보았다. 또한 백두산정계비 건립 당시에 그린 『백두산정계비도』와 이후 백두산 일대를 그린 각종 고지도를 살펴 보아도 백두산정계비의 위치는 대체로 동일하다. 고지도에는 백두산과 연지봉 사이에 백두산정계비가 그려져 있고 그 옆에 분수령이라고 적혀 있다.



▲ 두만강 상류 수계 개요도

개요도는 최남선의 『백두산근참기』(1927)에 첨부된 것인데, 붉은 실선은 최남선 일행의 이동경로를 표시한 것이다. 두만강 상류의 물줄기를 상류에서부터 보자면 홍토수(紅土水), 석을수(石乙水), 홍단수(紅丹水, 개요도에서는 '紅湍水'로 표기되어 있음), 서두수(西頭水) 순이 된다.



▲ 백두산 천지

알아볼까요?

장백산문화

중국 동북지역의 경제건설 과정에서 문화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장백산문화'라는 용어가 새롭게 등장하였다. '장백산문화'는 1994년 바이산시(白山市)에서 백두산지역 문화사업을 진흥하기 위해 개최한 '장백산문화학술회의'에서 제기되었다. 이후 2000년 지린성 주관으로 '장백산문화연구회'가 결성되어 활동의 폭을 넓힘으로써 '장백산문화'는 동북문화의 상징으로 부각되었으며, 2008년 백두산의 장백산보호개발구관리위원회에 장백산문화연구회 연구기지가 설치되면서 백두산개발과 문화연구가 결합되었다.

'장백산문화'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연구성과가 축적되면서 '장백산문화'의 내용이 체계화되었다. '장백산문화'는 '장백산지역에서 숙신족계와 예맥족계 문화를 기초로 하고 중화문화를 주체로 해서 여러 민족이 공동으로 만들어낸 지역문화'라고 정의되고, '장백산문화'의 특징으로 ①농경, 어렵, 유목이 결합된 물질문화 ②군정합일, 상무승실의 정치문화 ③질박하고 자연스러우며 말타기와 활쏘기에 능한 민속문화 ④애니미즘, 다신숭배의 샤머니즘문화' 등이 제시되었다. 또

한 백두산지역의 구석기문화와 요하유역의 신석기문화를 ‘장백산문화’의 기원으로 삼음으로써 ‘장백산문화’의 유구함을 부각시키고, 만주족 계통의 문화를 중요시하면서도 다민족 문화의 융합에서 중화문화의 주도적 지위를 강조하였다.

‘장백산문화’는 한반도와 만주지역에 거주하였던 다양한 민족들의 문화적 요소들을 ‘장백산문화’ 속에 포괄시키고 ‘통일적다민족국가론’을 적용하여 ‘장백산문화’를 중화문화의 기원이자 주요 구성부분으로 만듦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동북을 진흥시키려면 동북인을 깨워라’라는 슬로건처럼 ‘장백산문화’는 중국 동북지역 사람들을 경제개발의 주체로 변화시키는 동시에 관광산업과 문화산업의 풍부한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4

‘동북공정’이
남긴 것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

동북아시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4

‘동북공정’이 남긴 것,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공정’은 2007년 초반 5년간의 사업기간이 종료되었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동북공정’의 결과물들이 사업기간 중에 책으로 출간되었거나 앞으로 나올 예정이다. 이 서적들에는 ‘동북공정’식 역사인식이 담겨 있다. 한번 세상에 나온 역사서는 없앨 수가 없다. 그러므로 ‘동북공정’은 현재진행형이자 미래에도 지속될 문제인 것이다. 또한 ‘동북공정’은 다른 형태로 계속 파급되고 있다. ‘동북공정’ 관련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다.

중앙이 주도하던 연구가 지방정부 기관이나 대학으로 옮

겨져 ‘동북공정’식 역사인식을 담은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2002년 이후 지린성에는 ‘지린성 고구려연구중심’, ‘고구려연구기지’, ‘고구려연구원’, ‘고구려·동북민족연구중심’ 등 여러 기관이 세워졌고, 랴오닝성에는 ‘중국동북사연구중심’이 만들어졌다. 이 연구기관들에서는 고조선사, 고구려사, 발해사 등 우리 고대사 관련 연구를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동북공정’의 논리를 보완하고 심화하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 종전까지 한국고대사를 연구하던 중국학자들은 다른 나라의 연구성과를 거의 보지 않았고, 우리의 『삼국사기』는 물론 다른 외국 사서의 기록도 참고하지 않았다. 단지 자신들의 주장에 맞는 사료만 골라 일방적인 주장을 내세우는 경향이 강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나라의 사서와 연구 성과도 분석·비판해 가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고조선사, 고구려사, 발해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늘어났다. 동북 3성에 국한되었던 과거와 달리 지역적 연관이 없는 학자들도 연구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신진연구자들의 활동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요컨대 ‘동북공정’을 계기로 고구려사를 비롯한 동북 3성 지역에 대한 연구물의 양적 팽창과 질적 수준의 향상, 연구자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생산된 연구물들은 여러 학술잡지를 통해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편 중국 국민들에게도 ‘동북공정’식 역사인식이 전파되

고 있다. 고구려·발해유적지의 안내판이나, 박물관의 전시 설명문, 대학교재 등에는 이미 '동북공정'식 인식과 논리가 반영되었다. 2006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지린성위원회가 건의하여 통과된 '지린성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1차 5개년 계획 요강'에는 '중화명산 장백산', '세계문화유산 지안 고구려유적' 등 지린성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산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관련 유적지를 관광지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동북공정'식 인식은 더 깊숙이,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될 것이다.

물론 아직도 한국과 중국 간의 역사 갈등에 대해 잘 모르는 중국인들이 많지만, '동북공정' 이후 이에 관심을 갖는 일반인과 네티즌들의 숫자가 늘어났다. 이들 가운데에는 혐한 감정을 드러내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들로 인해 한중 간 역사 갈등이 더욱 악화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전문가의 손을 떠나 일반인에게 확산된 '동북공정'은 비학문적, 비상식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소지가 다분하다.

그럼 이런 상황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동북공정'과 관련하여 이미 출간되었거나 앞으로 출간될 결과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동북공정'식 주장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전 세계 사람들이 고조선·부여·고구려·발해의 역사가 한국사에 귀속된다는 엄연한 사실을 납득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심화하고, 논리를 더 개발해야 한다. 우리 학계

가 연구를 선도해 나가면서 중국 측의 자의적인 역사해석에 대해 과학적이고 학문적인 차원에서 오류를 시정하는 작업을 지속해야 한다.

셋째, 고구려사나 고조선, 발해사 연구자 양성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표면적으로 보면 '동북공정' 이후 이 분야 연구자가 늘어난 것 같지만 의외로 신진연구자의 수는 그리 늘지 않았다. 중국에서 신진연구자들의 숫자가 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신진연구자 양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

넷째, 우리의 연구 성과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한국사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외국인들의 경우 중국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의 연구성과를 널리 알려 올바른 동아시아 역사관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자라나는 세대들이 성장하여 세계인들과 교류하게 될 때, 우리의 역사를 확실히 지킬 수 있도록 역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정체성 상실은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진행되지만, 정체성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역사지킴기에는 외교적 노력도 더해져야 한다. 역사왜곡은 학술 견해의 차이인 동시에 국가 간의 외교문제다. '동북공정' 자체가 학문에 국한된 사업이 아닌 만큼 우리도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체계적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역사분쟁은 단기전이 아닌 장기전인 만큼 긴 호흡과 인내심

한중 역사 현안 바로알기

이 요구된다.

끝으로 우리 국민 모두 우리 역사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 우리 역사와 문화를 모르는 채 감정적 대응만 한다면 우리 역사를 지킬 수 없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5
'동북공정'의
사업 내용과
연구 결과물

5

‘동북공정’의 사업 내용과 연구 결과물

- ◎ 중국사회과학원 산하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 홈페이지 (<http://chinaborderland.cass.cn>)의 ‘동북공정 소개(東北工程簡介)’를 보면, 동북공정의 과제는 ‘연구류’, ‘번역류’, ‘공문서자료류’로 분류된다.
- ◎ 먼저 연구류는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로 세분되는데, 기초연구란 역사상의 학문적 이론 연구를 의미하고, 응용연구란 이를 바탕으로 고구려·발해 등 특정 역사와 강역의 귀속 문제, 그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국경·영토 분쟁, 외교 관계, 문화 관광 전략 등 현실적으로 파생되는 문제들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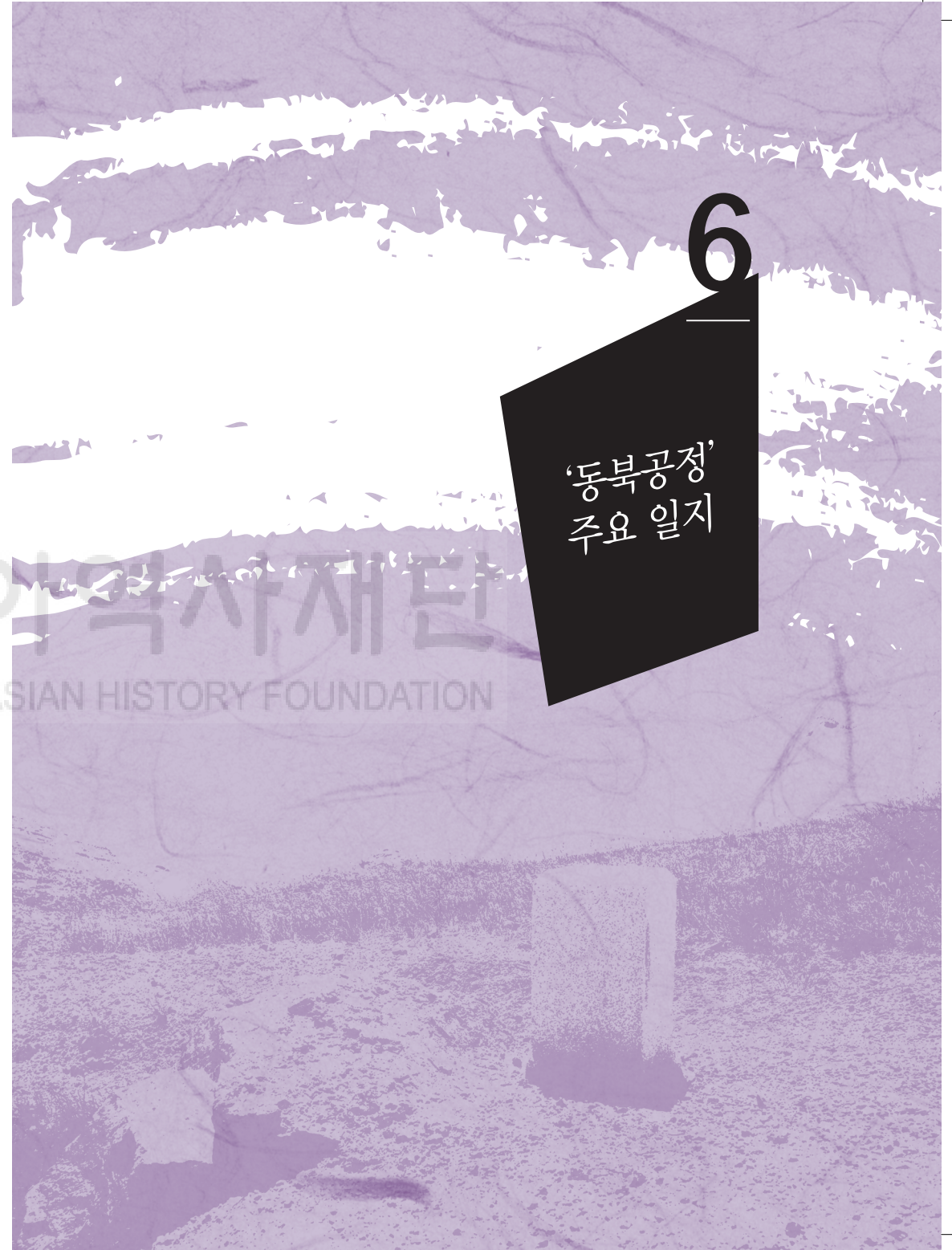
- ◎ 번역류는 남북한·러시아·일본·서양 연구성과의 번역, 러시아 학자의 극동지역 역사지리 연구논저 요약, 남북한 학자의 고조선·고구려·발해 역사 고고지리 연구논저 요약, 남북학자의 한중관계사 논점의 번역과 평론을 포함한다.
- ◎ 공문서 자료류는 동북변강 관련 공문서 사료 정리, 동북변강, 한·중, 중·러, 중·몽 관계 공문서 목록 정리, 동북변강 역사지도 수집 정리 및 연구, 동북변강 관련 사진의 수집 정리 및 연구가 있다.
- ◎ 동북공정 과제 수행을 위한 지침을 살펴보면, 고대 중국의 강역에 대한 이론 연구, 동북 지방사 연구, 동북 민족사 연구, 고조선·고구려·발해사 연구, 한중 관계사 연구, 중국 동북변강과 러시아 극동지역의 정치·경제 관계사 연구, 동북변경의 사회 안정에 대한 전략적 연구, 한반도 형세 변화가 중국 동북변경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등 우리의 고대사에서부터 현재와 미래에 관계된 모든 문제들이 총망라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 이러한 지침에 따라 2002년에 27개 과제, 2003년 15개 과제, 2004년 6개 과제의 기초연구와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응용연구 비롯하여 번역류 14개 과제, 공문서 정리류 4개 과제가 전국적인 공모를 통하여 선정되었다. 동북공정 홈페이지인 ‘중국변강재선(中國邊疆在線, www.chinaborderland.com)’



한중 역사 현안 바로알기

chinaborderland.com)’에 이미 공개된 선정 과제들은 고구려 사뿐만 아니라 발해사, 고조선사를 비롯하여 간도 및 한중 국경문제 등 우리 역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문제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 ◎ 동북공정 과제의 연구 결과는 지금까지 모두 25종이 발간되었다. 먼저, 중국사회과학원 직영 출판사인 중국사회과학출판사에서 ‘동북변강연구총서’ 시리즈로 『고대 중국고구려사 속론』을 비롯한 9권이 출간되었다. 그리고 길림인민출판사에서 『간명고구려사』를 비롯한 6종 8책이 발간되었다. 이 외에 홍콩아주출판사에서 『당대발해국오경연구』, 흑룡강인민출판사에서 『이십세기중국동북변강문화연구』가 출간되었다. 이로 보아 각 지역 출판사에서 개인 학자들의 연구결과물들이 지속적으로 출간되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6
'동북공정'
주요 일지

동북아시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6

‘동북공정’ 주요 일지

2002년

- 1~2월
 - 동북공정 영도소조와 전문가위원회 구성
 - 1차 전문가위원회 개최(베이징)
 - 동북공정 정식 출범
- 4월
 - 고구려역사연구 학술좌담회 개최(지린성 창춘)
 - 2차 전문가위원회 개최(베이징), 고구려·발해·고조선·백두산 등 연구 과제 선정
- 7월
 - ‘제2기 동북강역의 역사와 현상 및 고구려학술토론회’ 개최(지린성 창춘·통화) - 100여 명의 전문가 참여, 70여 편의 논문 발표
 - 고구려·발해·고조선·백두산 등 연구과제 선정
 - 광개토태왕대왕비 등 중국내 고구려유적, 세계문화유산 신청

200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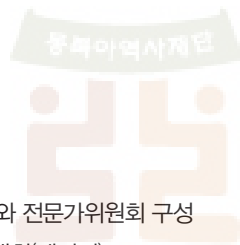
- 8월
 - 3차 전문가회의 개최(헤이룽장성 헤이허) - 고구려·발해·고조선·간도 등 연구과제 선정
 - ‘고구려발해문제 학술토론회’ 개최(지린성 옌지), 25명의 전문가 참석
- 10월
 - ‘고구려 국내성 천도 2000주년 및 3차 전국 고구려 학술토론회’ 개최(지안)
 - 『古代中國高句麗歷史續論』 등 동북변강총서 6권 발간
 - 고구려·발해·고조선·간도 등 연구과제 선정
 - 고구려유적 정비, 중국사의 일부로서 박물관 전시개편 및 유적 설명판 설치

2004년

- 7월
 - 중국과 북한의 고구려유적 세계문화유산 등재
- 8월
 - ‘고구려역사문제연구토론회’ 개최(옌지) - 50여 명의 전문가 참석
 - 중국 외교부 부부장 우다웨이 내한 - 우리 정부와 5개항 구두 합의
- 12월
 - ‘고구려문화의 역사적 가치’ 한중학술회의 개최(베이징) - 고구려연구재단과 중국사회과학원 공동주최
 - 고구려유적, 세계문화유산 등재
 - 발해·고려·간도·백두산 등 연구과제 선정

2005년

- 8월
 - ‘고구려역사문제 학술연구토론회’ 개최(옌지) - 30여 명의 전문가 참석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0월 · '고구려 문화의 역사적 의의' 한중학술회의 개최(수원) - 고구려연구재단과 중국사회과학원 공동주최

2006년

6월 · '당조 발해국 상경용천부 유지 보호조례' 헤이룽장성 상무위원회의 심의 통과,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8~9월 · 『발해국사』 등 동북변강총서 3권 발간
· '고구려문제 학술연구 토론회' 개최(연지)

10월 · 한·중 정상회담 개최(베이징) - 원자바오 총리, 2004년의 구두양해사항 존중입장 표명 / 후진타오 주석, 2004년 구두양해사항 이행 약속

11월 · 닝푸쿠이 주한 중국대사, 백두산의 유네스코 자연문화유산 등재 추진은 관련국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언급
- 『발해국사』 등 동북변강총서 3권 발간

2007년

3월 · 중국사회과학원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 연변대에 東北邊疆地區國情調研基地 설립

4월 · 한·중 정상회담 개최(서울) - 원자바오 총리, '영토, 역사문제는 정치와 학술, 현실과 학문을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6월 · 중국, '고려 태조 왕건은 한반도 토착 신라인의 자손이 아니라 漢族의 후예였다'는 논문을 발표

7월 · '동북아 변강역사연구' 국제학술회의 개최(일본 후쿠오카)
- 일본 규슈대 한국연구센터와 미국 한국평의회 공동 주최

9월 · 중국, '고구려 28대 국왕의 왕릉 모두가 지안에 있다'고 주장하는 논문 발표

10월 · 통화사범대학 고구려문화연구기지와 연변대의 발해문화연구기지가 길림성 중점연구기지로 확정

11월 · 중국 신화연구자, '단군신화가 黃帝 집단의 곰 토템에서 기원했다'는 주장을 제기

12월 · 발해 중경성의 발굴보고서 『西古城-渤海國中京顯德府故址田野考古報告』 발간

· 한·중 총리회담 개최(베이징) - 역사문제가 양국관계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동북아역사재단과 중국사회과학원 간의 교류를 적극 추진키로 함

· '고구려 초기역사 연구' 한중 학술회의 개최(베이징)
- 동북아역사재단과 중국사회과학원 공동주최

· 『高句麗王陵通考』 발간

2008년

7월 · 『唐代渤海國五京研究』 발간

8월 · '동북공정과 고구려' 국제학술회의 개최(벤쿠버)
- 국제고려학회 주최

9월 • 『簡明高句麗史』·『中國歷代朝貢制度研究』·『中國古代治理東北邊疆思想研究』 등 6종 8책 발간

11월 • ‘졸본시기의 고구려역사 연구’ 한중 학술회의 개최(제주도)
- 동북아역사재단과 중국사회과학원 공동주최

2009년

5월 • 중국 포털사이트 바이두(百度), ‘이어도는 중국 영토’라고 주장, 파문이 일자 기사 삭제

7월 • ‘2009년 동북 변강의 역사와 문화 학술토론회’ 개최(창춘) - 60명의 전문가 참석
- 중국사회과학원, 길림성사회과학원 주최

12월 • 『동북변강의 역사와 문화연구(東北邊疆歷史與文化研究)』 (길림성사회과학원학술연구총서, 길림인민출판사, 2009.12) 발간

2010년

7월 • ‘제6차 장백산문화토론회’ 개최(창춘)
- 장백산관리위원회, 길림성장백산문화연구회, 길림성도서관 공동주최
• 중국 봉황위성방송국, ‘비약하는 중국(騰飛中國)’이라는 프로그램의 ‘중국 영해 안전-중한 영해 분쟁’에서 이어도가 중국의 영해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에 포함된다고 주장
• 장백산관리위원회 ‘길림성 장백산문화사업 발전규획’ 편성작업 시작
- 길림성사회과학원 주관

2011년

5월 • 제3기 ‘중화문명탐원공정’ 개시
- 중국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와 북경대학 고고문박학원, 중국국가박물관, 돈황연구원, 진시황병마용박물관 등 중국내 30여 개 과학연구기관의 연합 프로젝트

6월 • 길림대학, ‘길림성 고구려연구센터 2011년 계획과제 안내’
- 고구려벽화, 고구려·발해 문헌자료 정리와 연구, 고구려·발해 고고연구, 부여의 역사와 문화연구 등

•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제3차 국가급무형문화제 명단에 연변주의 아리랑, 가야금예술, 조선족 회혼례와 철령시의 조선족 판소리가 포함

7월 • 『중국변강사지연구』 집지사와 섬서사범대학 서북민족연구중심 공동주최로 ‘중국 강역 이론 학술연토회’ 개최(시안)

8월 • 장춘사범학원 주관, 중국사회과학원 변강사지연구중심 협찬, “동북 포럼: 동아시아 시각에서 본 동북변강 연구” 학술연토회 개최(창춘)
- 50여 명의 전문가 참석, 동북변강의 당안문헌 발굴과 정리, 변강 조사연구 방법, 자료축적 등에 대해 토론

11월 • 중국 CCTV, 12일부터 17일까지 ‘장백산 다큐멘터리’ 6부작 방영
- 발해의 귀속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 조선족의 농약무를 장백산지역 전문문화의 하나로 거론, 중국이 선정한 무형문화유산임을 강조
• 길림대학 동북아연구원, 북경대학 아태연구원 공동 주최, 북경대학 한국학연구센터 협찬으로 북경대학·길림대학 동북아포럼 ‘한반도 평화발전과 주변 대국 관계’ 연구토론회 개최(베이징)

한중 역사 현안 바로알기

- 12월 • 길림성사회과학원 주관, '동북변강 역사와 문화' 좌담회가 길림성사회과학원에서 개최(창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